보성군 농산물분석실 구축 공모 선정

전남 유일…사업비 10억 확보
첨단 장비 확충·실험환경 개선
연간 검사 처리능력 150% 향상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전경.

보성군이 농촌진흥청의 '2025년 농산물안전분석실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0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농산물 생산과 로컬푸드 유통단계의 안전성을 분석할 전문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전남에서는 보성군이 유일하게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보성군은 2009년부터 자체적으로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수행해 왔으나, 유통 구조의 다양화와 소비자 요구 수준의 고도화에 따라 첨단 분석장비 확충과 실험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잔류농약 다성분 분석장비(LC-MS/MS) 등 정밀 분석 장비를 추가 도입하고, 시료 전처리 및 품질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연간 검사 처리능력을 기존 대비 약 150% 향상할 계획이다.

또한 분석실 공간 재배치와 환경 개선으로 근무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농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사 확대, 농업인 대상 잔류농약 저감 기술지원 등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장할 방침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장비 확충이 아니라, 지역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이는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순천만국가정원서 무료 승마체험 하세요

3주간 매주 토·일 선착순 접수

순천 도심에서 무료 승마체험이 가능하다.

순천시가 한국마사회와 협업해 지난 1일부터 3주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순천만국가정원 내 스페이스 브릿지 하부 동천변에서 승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체험은 당일 현장 선착순 접수로 진행하며, 체험비는 무료이다. 키 105cm 이상, 체중 75kg 이하의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매시 정각에 시작해 45분 운영, 15분 휴식 시간으로 진행한다. 승마체험 외에도 관상마 전시와 포토존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운영해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는 동물복지를 고려해 총 4두의 말을 2두씩 교대 운영하며, 말에게는 매시간 15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제공한다. 또한 말 관련 국가자격을 갖춘 인력을 반드시 포함해 운영상의 안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생태자원인 정원과 승마를 융합해 동물과 자연을 매개로 한 치유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승마문화의 대중화와 확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동물자원과(061-749-446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순천시는 2024년 자체 1회, 마사회 협업 1회 등 총 2회의 승마체험을 운영해 1만여명이 넘는 체험객이 참여한 바 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맥주와 함께 낭만의 가을밤 구례읍 5일시장서 오맥축제

구례군이 오는 8일 구례읍 5일시장(상설무대) 일원에서 '가을밤! 낭만가득! 제11회 오맥축제 오라!구례'를 개최한다.

오맥축제는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상권과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 상생형 야간문화 축제다.

이번 축제는 '가을밤! 낭만가득!'을 주제로, 지역상인회와 청년점포, 주민협의체가 함께 참여해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소규모 맥주축제로 진행된다.

이날 오후 5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가수 주태령, 정소라, 김한나, 러브어스 앙상블의 무대가 이어지며, 가을밤을 낭만적인 음악으로 물들일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500원에 500cc 생맥주 1잔(1인 최대 4잔)을 제공하며,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교환권(쿠폰) 제도를 운영한다.

또한 청년점포와 주민점포가 참여해 튀김, 부추전, 닭강정, 떡볶이, 치킨 등 다양한 안줏거리와 수제빵, 공예품을 선보인다. 버스킹 공연과 게릴라 이벤트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돼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올해 마지막 오맥축제가 구례읍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과 상인, 방문객이 함께 웃는 상생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례 도시재생사업과 전통시장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대표 야간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고흥군민의 날, 세대를 잇는 화합 무대

600여명 참석 참여형 군민축제

고흥군이 지난 1일 고흥문화회관 김연수실에서 군민과 출향향우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1회 고흥군민의 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

올해 기념식은 '세대가 이어온 꿈, 함께 만드는 고흥의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세대를 아우르고 모두가 함께하는 '참여형 군민 축제'로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고흥의 과거·현재·미래를 담은 사진전시를 비롯해 부서별 정책홍보, 각종 시음·시식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돼, 군민과 향우가 함께 즐기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기념식에서는 고흥군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애써주신 분들에게 군민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가 전달됐으며, 다자녀가정, 청년, 다문화가정, 환경미화원 등 '평범한 군민들'이 각자의 일터와 삶 속에서 직접 전한 축하 영상메시지가 상영돼 따뜻한 감동을 더 했다.

공영민 군수는 기념사에서 "그동안 군민 통합을 최우선에 두고 우주·드론·스마트팜이라는 3대 미래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고흥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왔다"며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와 드론특화단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으로 '2030년 인구 10만 고흥'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정기명 여수시장, 중국 자매도시 방문 섬박람회 참가단 유치·교류 협력 확대

여수시가 중국 자매·우호도시 방문하며 섬박람회 참가단 유치에 나섰다.

여수시가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중국 자매·우호도시 웨이하이, 리수이, 샤오싱 3곳을 방문해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참가단 유치 및 교류 협력 확대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전 세계 30개국 300만 명 방문, 외국인 9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는 만큼 자매·우호 도시가 가장 많은 중국을 중심으로 참가단 유치를 본격화하기 위한 것이다.

첫 번째 일정으로 인구 290만여 명의 웨이하이시를 방문해 한인회와 여행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섬박람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부정기 항공편 운항 등 구체적인 참여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2005년부터 활발히 교류 중인 산둥성의 리수이시에서는 주린썬 리수이시장과 면담을 갖고 섬박람회 기간 시 대표단 참가와 협력 강화를 요청하며 필요 시 참가 협약 체결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제 우호도시 샤오싱시를 방문해 우덩펀 샤오싱시장과 외교 담당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리수이시와 함께 시 대표단 참가 협약 체결 등 구체적인 참여 방안을 논의한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중국 자매·우호도시 방문을 통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국제적 관심과 인지도를 높이고 참가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박람회가 우리 여수시의 새로운 도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계기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곡성군, 군민 1인당 30만원 '전남형 기본소득'

곡성군이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곡성군 전남형 기본소득을 오는 10일부터 지급한다.

곡성군 전남형 기본소득은 군민 1인당 30만원이 지급되며 곡성심청상품권 형태의 선불카드와 모바일(착_chak) 상품권 두 가지 유형으로 지급되며, 신청·지급은 읍·면사무소와 모바일 두 가지 경로로 진행된다.

군은 군민들이 편리하게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일정을 단계적으로 운영한다. 먼저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읍·면 직원이 마을을 방문하여 현장 접수와 지급을 병행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곡성=박순규 기자 psk8210@kwangju.co.kr